 내가 접한 식물 혹은 동물 (단 한 종류만)에 비추어 본 나의 삶

미네르바 글쓰기 주제를 접하고, 먼저 나는, 나의 삶을 짧게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. 그동안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나. 그런 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줄 만한 식물 혹은 동물은 무엇이 좋을까.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,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‘잡초’였다.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나와 비슷한 식물을 골랐을 것 같다. 하지만 잡초 외에 내 삶을 가장 잘 설명해줄 동물 혹은 식물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. 그 이유는,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저항하지 않고 꿋꿋이 참고 견뎌온 ‘잡초’ 같은 인생.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,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.

나의 삶은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그 시작은 초등학교

물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을 학우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한다.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일찍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학우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학대 속에서 상처와 아픔 속에 힘겹게 자랐을 학우도 있을 것이다.

그렇기에 나는 내 삶이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이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.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, 나는 내 인생 중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, 과거 그 어떤 순간으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.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약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